



# 이화소식

# NEWS<sup>WHA</sup>

2004년 9월 15일 발행 제66호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박동희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 www.ewha.ac.kr  
웹진 이화소식-news.ewha.ac.kr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2, 14절)

## 클릭! 이화는 지금- 학내 정보화 시스템 구축중

‘현금없는 캠퍼스’ 만드는 이화다기능카드도 도입

# EPIS로 하나되는 ‘온라인 이화’

(Ewha Portal Information System · 이화포탈정보시스템)

재학생 · 교직원 · 동창 등 모든 이화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만나의 사소통하고, 교육이나 연구 · 행정 등 각자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이번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본교 정보통신처(처장 채기준 교수)가 정보화 마스터플랜에 따라 추진 중인 이화포탈정보시스템 EPIS(Ewha Portal Information System)가 바로 그것.

학교와 구성원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정보망으로 연결, 이화를 첨단 e-캠퍼스로 만들겠다는 이 프로젝트는 ▲새 홈페이지 및 포탈시스템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정보 서비스 제공 ▲전자우편 · 전자결재 · 문서관리 등 효율적 행정시스템 도입 ▲최첨단의 정보 인프라 및 지원조직 재구성으로 유연하고 보수유지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러스트 · 이윤희

### 로그인 한번으로 학내 모든 사이트 접속

우선 이번 10월중 새로워진 홈페이지를 선보이며 곧이어 포탈시스템도 정식 오픈한다. 포탈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가장 크게 개선되는 점은 하나의 아이디로 학내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싱글사인온(Single Sign On) 시스템. 홈페이지, 중앙도서관, 사이버캠퍼스, 이화인닷컴 등 그동안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던 학내 사이트들이 포탈시스템 안에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에 한번만 로그인하면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또 개인별 메뉴 구성이 가능해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설정, 문자 그대로 ‘마이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처는 포탈화에 따른 정보 집중 및 서버 불안정 문제, 개인 정보의 보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속도 향상과 인증 절차 참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및 Q&A-4면으로 이어짐>

# “진정한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드는 리더가 되길”

학사 8백32명 등 2천여명의 이화인들, 사회속으로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사진)이 지난 8월 27일(금)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성태제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용석 교목실장의 성경봉독에 이어 학사·석사·박사 학위 수여식, 신인령 총장의 졸업식 사순으로 진행됐다.

신인령 총장은 정든 캠퍼스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이화인들에게 “이화의 지도자상은 ‘섬기는 리더’라고 강조

하고 “지난 118년 동안 사회적 소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실천해 온 선배들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여 국제적 수준의 전문 능력을 갖춘과 동시에 세계화의 발전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소외와 억압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또 선배들의 노력으로 제도적 평등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여전히 여성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가로막는 다양한 편견들이 존재한다면 “복잡화·다층화 되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대립과 갈등의 낯은 관점을 버리고 상생과 조화의 관점에서 진정한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선도자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백32명·석사 7백18명·박사 52



명이 배출됐으며 최우등 졸업생 12명, 우등 졸업생 65명, 조기졸업생 22명에, 졸업생 대표는 윤미연(체육·4, 4.3만점에 4.16)양이 맡았다.

한편 이화 118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해성(75·미국 예일대 명예교수)씨 등 4명에게 명예졸업장이 수여됐고, 금혼 학칙 관련 재입학생 중 김혜숙(71·의직), 서인봉(67·의직)씨 외 4명이 친지들의 따뜻한 축하속에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품에 안았다.

외손녀딸 최서윤(섬유예술·3)양과 함께 캠퍼스 메이트가 되어 교정을 누볐던 김혜숙씨는 “5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니 인생에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흥분한 기분이다. 늙은 학생을 친구 삼느라 고생했던 손녀딸이 제일 시원섭섭할 것”이라고 졸업소감을 밝혔다.

나이를 무색케 하는 열정으로 어린 학우들을 리드했던 서인봉씨는 “1년 동안 결석, 지각 한번도 안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다. 한층 젊어진 기분이고 이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학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금혼 관련 재입학생의 졸업은 지난 2월 전기 학위수여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첫 번째 명예졸업자 4명 탄생

# “언제나 제 마음은 이화에 있었습니다”

● 전해성 박양덕 유한선 박정자 동문 ●

이화 118년 역사상 처음으로 4명의 명예졸업자가 탄생했다.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 전해성(75·영문 2학년 재적), 한국성천문화재단 이사 박양덕(73·정의 1학년 재적), 미국 샌터너리대 한국지부 총동창회장 유한선(70·정의 2학년 재적), 연극배우 박정자(62·신문방송 3학년 재적)씨가 그 주인공.

미국 예일대 법대학장인 고희주씨의 모친으로도 잘 알려진 전해성씨는 “영문과 2학년 때 미국유학을 떠나 학업을 마치진 못했지만 한시도 이화대학생임을 잊어본 적이 없다”며 “오랫동안 떠나있던 사람을 잊지 않아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50년만의 졸업장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학 시절 내내 문리대 연극부 활동을 했던 박정자씨는 “나에게 이화여대는 배우의 삶이 시작된 곳이자 40년 연



전혜성



박양덕



유한선



박정자

극인생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곳”이라며 “이력서에 이화여대 졸업생이라고 당당히 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정자씨는 신문방송학과 3학년 때인 1963년 동아방송 1기 성우시험에 합격해 학교를 그만뒀었다.

박양덕씨와 유한선씨는 결혼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이번 학위수여식에 명예졸업자 대표로 참석한 유한선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 대학 학위를 받았지만 이화여대 졸업장이 내겐 더 소중한 선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명예졸업장은 본교에 입학하고 졸업은 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사회적·국가적 발전에 특별히 공헌해 이화여대의 명예를 빛낸 자’나 ‘이화여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된다.

# 올 여름에만 해외 7개 대학과 학술 교류협정 체결

국제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해온 본교가 최근 해외 각국의 대학 및 유명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활성화, 국제적 수준의 교육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국제교육원(원장 김은미 교수)은 올 여름에만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핀란드, 뉴질랜드 등의 7개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다.

특히 95년부터 협정을 맺어온 하버드대학의 연칭 연구소와는 2009년까지 이를 연장하기로 합의, 지난 7월12일 문서를 교환했다. 이 협정에는 본교의 인문·사회과학 전공 교수가 연칭 연구소에 지원, 선발될 경우 필요 경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8월11일에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빅토리아 대학(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과 학술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은 아시아 연구 전공인 이 대학 엠스테인 교수가 지난 3월 본교를 방문, 국제 교육프로그램들을 둘러본 후 본격적으로 학술 교류를 추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일본 아이치 슈쿠토쿠 대학(7월15일)·세이난 가쿠인 대학(8월2일)·오이타 대학(8월3일), 인도네시아 브라위자야 대학(7월7일), 핀란드 유베스쿨레 대학(7월26일)과 학술 교류 협정을 맺었다.



학술교류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는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의 퀼레이 부총장과 본교 유정희 대외부총장.

한편 7월23일에는 2006년부터 5년간 폴브라이트 재단(한미교육 위원단)이 선발한 세계 석학이 본교에서 한학기 또는 1년간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이화-폴브라이트 석학교수 초빙 프로그램' 협약식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본교는 세계적인 석학들의 수준높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화 관련 프로젝트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지난 4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총18회 시위

# “교육환경 수호 활동은 계속 됩니다”



위에는 7백50여명이 동참하였고 5백여명이 서명운동에도 참가, 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4월28일에는 '신촌 대학가 교육환경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본교의 '교육환경을 위한 교수 모임'과 총학생회를 비롯, 신촌 일대 대학인들과 환경단체 등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한 신촌 만들기를

다짐한 바 있다.

이러한 이화 공동체의 노력은 정문 앞 상가 '메이퀸'이 상호를 변경하고 상가 운영시 이화인의 의견을 반영키로 하는 등의 결실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수요피켓시위'에 참가해온 김영심 과장(학생처)은 “지난 4개월간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실효성있는 교육환경 지키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이화의 교직원 및 재학생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학교앞 상업화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수요피켓시위' (사진)가 지난 8월25일로 끝났다.

정문 앞 대형쇼핑상가 분양과 신촌역 민자역사 건설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업화 속에 본교의 교육 환경을 지키고자 지난 4월7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진행된 피켓시

##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지원 중점연구소로 선정

# 나노·바이오 기술연구소

본교의 나노·바이오 기술연구소(소장 김성진 교수)가 지난 8월18일, 학술진흥재단이 중점지원하는 중점연구소로 최종 선정되어 첫해의 6억5천5백만원을 비롯, 앞으로 5년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게 됐다.

국내 우수 이공계 대학연구소를 집중 육성,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학술진흥재단이 확대 실시중인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는 총51개 대학, 1백50개 연구소가 지원,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본교 외에 서울대(2개), 건국대(2개),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숭실대, 고려대, 부산대, 경상대, 원광대, 전남대, 창원대 등 총15개 연구소가 선정되었다.

나노·바이오 기술연구소는 본교 나노과학부 14명의 교수진과 연구교수, 박사후 연구원, 대학원생 등 총 4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나노구조설계 및 물성연구(1팀), 생기능 나노분자 인식기술연구(2팀), 새로운 의약전달물질의 합성연구(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진 소장은 “최진호 교수의 나노과학부 영입과 함께 이번 중점연구소 선정이 이화의 나노과학 연구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채기준 정보통신처장과의  
일문일답으로 풀어본

## EPIS, 이것이 궁금하다

**Q** 대학들이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타대학과 비교해서 EPIS의 강점이 있다면...

**A** 본교는 1995년부터 국내 그 어느 대학보다 먼저 정보화를 추진해 왔다. '세계 최고의 여성지도자 육성'이라는 이화 21세기 비전을 달성하려면 남보다 앞선 정보화 시스템은 필수이다. EPIS는 재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동창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이는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년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는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평생 메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교직원, 동



창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된다. 이 평생 메일이 학교 구성원간의 공식 의사소통 채널이 되는 셈이다.

**Q** 그간 일반 교수들은 쓸 수 없어 불편했던 노츠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

**A** 포탈 시스템에서는 교수, 직원, 재학생, 동창 등 그룹별 맞춤 정보 제공과 함께 전자결재시스템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 교수들도 이를 통해 교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화 (@ewha.ac.kr)메일과 노츠 메일이 이화 메일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인터넷 기능과 일반 메일 기능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EPIS 도입에 앞서 이화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화는 원래 대리출석이 없기로 유명하지만 출석체크자와 실제 출석인원의 숫자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설 등 보완책을 만들 생각이다. 시스템을 가동하기 전 교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과대학과 2백석 이상의 대형 강의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원하는 강의부터 적용한다.

**Q**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즉,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나온 의견은 꾸준히 반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불편사항에 대한 지적 못지않게 장점도 키워갈 수 있도록 활발한 피드백을 부탁하고 싶다. EPIS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화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A** 출결 체크의 경우, 타대학은 대리 체크 등의

**Q** 이화 다기능카드의 부작용은 없는지...

**A** 특별히 그간 교내 건물마다 각각 사용해야 했던 복사기와 프린트 카드의 통합은 재학생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서관 열람실 좌석예약, 일일사용시간 설정 기능으로 도서관의 사석화 방지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결관리 기능의 경우, 우선 공과대학과 2백석 이상의 대형 강의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본교를 첨단 정보화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EPIS 구축 프로젝트는 내년 6월, 학사·행정업무, 경영정보시스템 등이 통합되면서 완결된다.

# 내년 6월, 학사·행정·경영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완결

〈1면에서 계속〉 EPIS와 함께 이화인들의 생활을 크게 바꾸어놓을 '이화 다기능카드 시스템'도 내년3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다기능카드란 IC (Integrated Circuit)칩을 내장, 학생증 및 신분증 기능 외에 현금(직불)카드, 식당 및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교통카드, 도서관 출입통제, 전자출결 등을 카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한마디로 카드 한장으로 캠퍼스 안에서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학교를 벗어나서도 일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k-cash 가맹점에서는 현금 대용으로 결제할 수 있다.

## 이화 리더십개발원, 개원1주년 맞아 학술대회 개최

### '여성적 가치와 여성 리더십' 주제로



조형원장

사회 각계각층의 여성 관리자들을 위한 리더십교육을 제 공하고 있는 이화리더십개발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9월17일(오전 10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여성적 가치와 여성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이번 대회에는 본교 정대현(철학)·이상화(철학)·장필화(여성학) 교수 등이 연구발표자로, 이영자(가톨릭대 사회학)·조은(동국대 사회학)·김현미(연세대 사회학)·고갑희(한신대 영문)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화리더십개발원은 지난해 9월 개원, '여성정치리더십과정', '기업여성리더십과정', '공직여성리더십과정', 'NPO여성리더십과정' 등의 네 과정을 개설해 약 1백5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여성리더십 전문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아 왔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학술교류협정 체결

지난 7월1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본교 신인령 총장과 백용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왼쪽)이 학술교류 협정서를 교환(사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연구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학술 협력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교 석학교수 1호로 초빙된 세계적 화학자 최진호 교수

# “이화를 나노·생명과학의 세계적 거점으로”

“평소 어느 대학보다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온 이화여대에서 학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들이 이화에서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8월11일 ‘뿌리는 바코드’를 개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세계적인 화학자 최진호 교수(56)가 20여년을 봉직해 온 서울대 화학부를 떠나 본교 나노과학부 석학교수로 초빙되었다.

석학교수 제도는 본교가 올해부터 연구업적이 특별히 뛰어난 현직교수나 외부 우수교수를 대우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최진호 교수는 이 제도에 의해 임명된 석학교수 제1호. 최 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나노과학부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지능형 나노 하이브리드 물질연구실’을 이끌며 지금까지 해오던 응용 연구활동도 계속한다.

“최근의 과학 연구 추세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벽이 없어지고, 나노 과학(NT)·생명 과학(BT)·IT 등이 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화는 최근 나노 과학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약학·의학 등 관련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 체제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 최



최진호 교수

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세대 출신(화공과 학부 및 대학원)으로 독일 뮌헨대학(이학박사)과 일본 동경 공대(재료공학박사)에서 박사학위를 딴 최교수는 순수학문분야에서 국내 최대 SCI 논문 발표(2백80여편) 기록을 갖고 있으며 각종 특허만 50개가 넘는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쳐 왔다. (주)나노 하이브리드라는 벤처 기업을 경영해온 교수 CEO로도 유명하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중 현재 상용화 단계에 와 있는 것만 비타민C 안정화 기술을 이용한 미백 화장품, 알로에 추출물인 식물성장호르몬을 이용한 항주름 화장품 등이 있으며 기존 약물의 효능이

나 불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약물전달체(Drug Delivery System)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 과학자와 응용 과학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시대는 끝났

다고 강조하는 최교수는 “앞으로 나노 과학과 생명 과학이 만나 융합하는 분야에서 이화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계적 화학자와 이화의 행복한 만남’이 앞으로 어떤 뉴스를 계속 만들어 낼지 이화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덕>



인  
터  
뷰

2005학년도 수시1학기 국제학부 합격한 만가노 노에미양

##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 국제무역을 공부해서 이탈리아에 한국 제품을 소개하고, 또 한국에 이탈리아를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본교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국제학부에 합격한 예비 이화인 만가노 노에미(Mangano Noemi · 19세 · 부천 중흥고 3년)양을 만났다. 정확한 한국어로 당당히 포부를 전하는 그 얼굴에는 합격의 기쁨이 여전했다.

“정말 기뻐요. 다른 대학도 지원했지만 이대 국제학부의 프로그램이 맘에 들어서 꼭 오고 싶었거든요.”

10살때인 1995년, 이탈리아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온 만가노 노에미. 언니와 여동생, 남동생 둘까지 총 7명인 노에미의 가족은 부산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했다. 그 덕에 부산 사투리를 먼저 배웠다. 중학교 2학년때 부천으로 이사 왔는데 처음엔 사투리 때문에 놀림을 받을까봐 한국말을 모르는 척했다고.

“장난도 잘 치고 편한 성격이어서 친구들이 많

은 편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반대표도 하고, 학교임원까지 했어요. 소풍가면 남아서 뒤처리도 다하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워낙 잘 어울리다보니 지금은 부천에서 알아주는 유명인사로 통한다.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 학생들과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교육방침에 따라 노에미를 포함한 5남매 모두 외국인 학교가 아닌 한국 학교를 다녔다. 한국 학생들과 똑같이 고전문학, 한국어, 한국문화 등을 배운 덕에 한국에 대해선 누구못지 않게 자신이 생겼다는 노에미.

“이탈리아보다 한국 대학이 학생수도 적고 교수님과도 친밀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언니(서강대 영문과 졸업)의 조언이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지나친 입시 열기에 ‘이팔청춘’들이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대학가면 놀기만 하는 모습은 안타깝다며 한국 교육의 단점도 지적한다.

“저희 반에서 예비대학생은 저 혼자예요. 친구들이 한턱내라고 난리났어요. 피자라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대학에 가도 교복만큼은 그리울 것 같지 않다는 노에미는 입학 전까지 영어공부에 전념해, 1백%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학부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 보겠다고 단단한 각오를 내비쳤다. <민>



만가노 노에미양

# 도전과 과제 속에 새 도약 이끌어갈 진용 갖춰

신인령 총장은 2004학년도 제2학기 보직인사를 단행, 대학구조개혁, 대입제도 변화 등 숏한 도전과 과제를 함께 풀어갈 새 진용을 갖췄다. 이번 인사에서는 유장희 국제대학원장을 대외부총장으로 임명, 체계화된 국제화 전략 속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본교 위상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유장희 부총장은 “앞으로 이화의 교수 및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세계 대학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의”의 또 다른 의미를 살려 ‘이화와 한국사회와의 교류’에도 많은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9개 본부 처장 중 이준승 연구처장, 채기준 정보통신처장, 신경림 대외협력처장은 유임됐으며 성태제 처장은 입학처장에서 교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보직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직명	성명	소속
대외부총장	유장희	국제학
의과대학장	한운섭	의학
교무처장	성태제	교육학
기획처장	박통희	행정학
학생처장	송덕수	법학
입학처장	박동숙	언론홍보영상학
총무처장	양혜순	영어교육
재무처장	조계숙	비서학
입학처부처장(상담)	최은봉	정치외교학
자금팀장	한기정	법학
산학협력단부단장	이미정	컴퓨터학
교목	양현혜	기독교학
경력개발센터원장	강혜련	경영학
사회복지관장	김미혜	사회복지학
한국문화연구원장	정하영	국어국문학
한국어문화연구소장	박창원	국어국문학
교과교육연구소장	김성원	과학교육
의과학연구소장	박혜영	의학
아시아시뮬레이션연구소장	장남수	식품영양학
대학원교학부장	김성진	나노과학부
환경학전공주임교수	강호정	환경학
국제학부장		
국제대학원교학부장	박인휘	국제학
국제정보센터소장		
임상보건과학대학원교학부장	하현주	약학
사학전공주임교수	조지형	사학

## 〈신임 처장단과 대학장〉



유장희 대외부총장



한운섭 의과대학장



성태제 교무처장



박통희 기획처장



송덕수 학생처장



박동숙 입학처장



양혜순 총무처장



조계숙 재무처장

보직명	성명	소속
중어중문학전공주임교수	심소희	중어중문학
동아시아학연계전공주임교수		
영어영문학전공주임교수	김준환	영어영문학
미국학연계전공주임교수		
유럽학연계전공주임교수	장미영	독어독문학
사회과학부장		
언론홍보영상학부장	유세경	언론홍보영상학
언론홍보영상학전공주임교수		
정치외교학전공주임교수	구대열	정치외교학
행정학전공주임교수	이근주	행정학
자연과학부장	안창림	물리학
화학전공주임교수	고수영	분자생명/화학
사범대학교학부장	성호현	사회생활학
유아교육과장	이기숙	유아교육
영어교육과장	김은주	영어교육
사회생활학과장	이영민	사회생활학
과학교육과장	우애자	과학교육
보건교육과장	이명선	보건교육
경영학부장		
경영학전공주임교수	박종훈	경영학
전자상거래학연계전공주임교수		
비서학전공주임교수	전지현	비서학
의과대학교학부장	하은희	의학
기생충학교실주임교수	양현중	의학
신경정신과학교실주임교수	김영철	의학

이  
화  
소  
식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본교 석좌교수로

“통일에 대비, 통일정책전문가 키우고 싶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본교 사회과학대학 석좌 교수로 초빙됐다. 정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매주 화요일 3 시간씩 북한학협동과정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남북교류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며 비정기적으로 학부생 대상의 특강도 가질 계획이다.

정교수는 “최근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 때의 다양한 현장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 남북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통일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북한 정책 실무와 이론면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정교수의 초빙으로 본교의 북한학 연구는 최근 신설된 교내 통일학 연구소와 함께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본교 명예석학교수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 특강

“한국 고대사 연구자료, 외국학자들과 공유해야”



본교 명예석학교수이자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장인 카터 J 에커트 교수가 본교를 방문해 9월7일(오후2시·학생문화관 소극장), ‘냉전 시대 이후의 한국사 연구의 새 지평(Coming Out of the Cold(War) : New Directions in Korean History)’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3백석을 가득 메운 강연회장에서 에커트 교수는 세계화·민주주의·문화 세 가지 측면에서 한국학 연구의 변화를 논하면서 “냉전 이후 정치적 관심보다 문화적인 코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역사적 의미를 찾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커트 교수는 또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현재 북미의 한국학 연구가 근·현대사에만 편중돼 왔다”면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고, 한국학자들만 갖고 있는 고대 한국사 연구 자료를 외국 학자들과 활발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커트 교수는 일간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친일파 청산 문제에도 언급,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친일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도식적인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여 풀어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에커트 교수에 이어 9월21일(화·오후3시30분)에는 영국 켄트 대학 앤드류 윌리엄스 교수(국제정치 전공), 22일(수·오후2시)에는 미국 브라운대 토마스 J 비어스터커 교수(국제학 전공)가 이화를 방문, SK텔레콤관 컨벤션홀에서 명예석학 위촉 기념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며 지켜온 이화 강단

2004년 8월31일자로 모혜정 교수 등 7명의 교수가 정년퇴임을, 김성구 교수가 명예퇴임을 했다.

이화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퇴임교수들의 프로필을 심는다.

## ● 김용서 교수(행정)



1984년 9월부터 20여년을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에 재직하면서 유능한 행정학 연구자 및 여성정책 전문인력 양성과 행정학 연구의 발전에 기여했다.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의 행정현실을 비교,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여 많은 후학을 배출했고, 30여년간 한국정부론과 인사행정론 분야에서 저술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특히 행정철학과 공직윤리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보수논객으로서 언론매체를 통한 정치·행정 관련 소신 발언으로 사회적 담론을 불러 일으켰고, 1980년대 초반에는 KBS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사회 현상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했다. '인사행정론' '정보화와 행정문화' '행정철학과 공직윤리' 등을 강의했다.

## ● 모혜정 교수(물리)



1971년 3월부터 34년을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 재직하며 여성물리학자 양성과 한국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한 후, 반도체 등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띠이론(band theory)에서 뚜렷한 연구업적을 남겼다. 자연과학대학장과 대학원장을 수차례 역임, 탁월한 행정능력과 포용력으로 학생과 교수가 한마음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성과학인을 육성하기 위해 여자대학으로는 세계 최초로 본교에 공대를 설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국가과학기술 자문위원으로 활동, 대통령의 과학정책수립을 도왔다. '과학과 문화' 강의는 매학기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강의 우수 교수' 에도 선정되었다.

## ● 신승애 교수(물리)



1965년 3월부터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에 40년을 재직하면서 유능한 후학 양성 및 핵의학물리학 발전에 공헌했다. 핵물리학 연구자로서 부임 초기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양성자를 핵전반의 핵과 산란시켜서 핵반응을 연구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고 80년대 초에는 반감기가 긴 방사선동위원소들을 수입, 방사선동위원소가 산업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핵의학물리학 분야를 개척했다. 여러 차례 물리학과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자연대학의 발전과 물리학과의 기반을 닦는데 기여했고, 1992년 교수간의 화합을 위해 교수성기대를 결성, 성가 대장으로 활동해왔다. 일반물리학 실험교육에 많은 정열을 쏟아 후학중 다수가 의학물리분야와 핵물리학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 김봉구 교수(조소)



1972년 3월부터 33년 동안 조형예술대학 미술학부 조소과에 재임하며 학문적, 교육적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고, 다수의 개인전, 초대전, 그룹전을 통해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판문점 자유의집 준공 기념 상징 조형물 제작(1998년), 중국 남경대학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 '남강대 학생' (2002년)을 제작 설치했으며 상파울로 비엔날레전, 서울 조각회 파리전, 아세아 국제 미술전 등 국제적인 활동으로 한국 조각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고교 미술 교과서와 대학 교재인 '미술향부학'을 집필, 미술 교육 발전에 공헌했으며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동아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중앙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미술계에 큰 역할을 맡아왔다.

## ● 박응범 교수(의학)



1976년 6월부터 의과대학 의학과에 28여년간 재직하며 유능하고 인격을 갖춘 의과 의사 양성과 의과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뤘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로 대장항문클리닉을 본교 부속 동대문병원에 개설, 대장항문분야의 교육과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다.

1981년 이래 꾸준히 발표한 대장내시경에 관한 논문 중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대장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이 분야의 연구와 진료에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일찍이 섬세함을 요구하는 여성 의과 의사의 필요성을 인식, 본교 의학과를 세계 최고의 여성의로 인력 양성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및 회장도 역임했다.

## ● 왕진만 교수(의학)



우리나라 척추외과학계의 저명한 학자이며 임상가로서, 1976년 12월부터 28년간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에 재직하며 척추외과 전문의 양성과 척추외과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임상적 업적을 이뤘다.

다수의 SCI 논문을 포함, 수많은 학문적 업적을 남겼고 다양한 임상 실험과 새로운 수술법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의료계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1984년에는 우리나라의 척추외과학의 본산인 대한척추외과학회의 창립을 주도했으며 창립 후에도 간사와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학회장을 역임, 우리나라 척추외과학계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본교 의과대학 의무부장 및 병원장을 역임하며 부속병원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 ● 이광옥 교수(간호과학)



1971년 9월부터 간호과학대학 간호학과에 33년간 재임하면서 간호사 양성과 지역 사회간호학 발전에 기여했다. 영유아 건강관리소 및 사회복지관 내 지역사회간호사업부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고, 간호대학부설로 호스피스센터를 설립, 지역사회 호스피스 교육 프로그램 발전에 공헌했다.

기독교간호사회 회장(1996~99년)으로 활동할 당시 국제 기독교간호사회 총회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 간호학의 국제적인 교류에 힘썼고, 세계적인 간호학자 학회인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Lambda alpha Chapter-at-Large의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간호과학대학 학장, 초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우리 기숙사 초대관장,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이화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했다.

간호과학대학 학장, 초대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우리 기숙사 초대관장, 총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이화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했다.

## ● 김성구 교수(물리)



1982년 3월부터 자연대학 물리학과에 23년간 재직하며 여성물리학자의 양성에 힘쓰며 소립자이론물리학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뤘다. 양자장론에 관한 연구 논문을 해외 저명 학술지에 다수 발표했고, 특히 함수적 슈뢰딩거 방법을 이용한 양자장론의 비섭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1998년 소립자연구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본교 유치, 흥볼트 재단의 지원을 받은 독일 방문연구, 미국 브라운대학 교환교수 활동 등 국제적 학술교류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물리학과 학과장, 교학부장을 거쳐 자연과학대학장 및 연구처장을 역임했다. '현대물리학과 인간사고의 변혁', '우주와 나' 등의 교양강의는 인기강좌 중의 하나였다.

# 2004학년도 제2학기 신입교원 52명, 석좌·초빙교수 4명 이화교육의 특성화 앞당길 우수 인력 영입

## 2004학년도 2학기 신입교수

대학(원)	전공(학과)	성명	최종출신학교	최종학위
대학원	나노과학부	최진호 (석좌교수)	Universitat München(독)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일)	Dr.rer.nat Ph.D.
	분자생명과학부	정우진	한국과학기술원	이학박사
		창동신	서울대	약학박사
	나노과학부	김진홍	Univ. of Minnesota	Ph.D.
		윤석현	Univ. of Illinois	Ph.D.
과기원/공대	건축학	이준성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국제대학원	국제학	우원석	Slate U. of New York/Buffalo	Ph.D.
		Heather A. Willoughby	Columbia Univ.	Ph.D.
	국제학부	이석원	Univ. of Texas/Dallas	Ph.D.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	John M. Frankl	Harvard Univ.	Ph.D.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	김진희	이화여대	문학박사
	기독교학	양현혜	동경대(일)	문학박사
	중어중문학	김의정	연세대	문학박사
		송정화	고려대	문학박사
		송지현	북경대(중)	문학박사
	영어영문학	신화섭	Essex Univ.(영)	Ph.D.
미술사학	장남원	이화여대	문학박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남궁곤	Univ. of Connecticut	Ph.D.
	경제학	김세완	Texas A&M Univ.	Ph.D.
	문화정보학	이상용	연세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	홍백의	Washington Univ.	Ph.D.
		장수미	이화여대	문학박사
	연문홍보영상학	송용희	Univ. of Missouri/Columbia	Ph.D.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	원용진	Rutgers Univ.	Ph.D.
	수학	심경아	이화여대	이학박사
공과대학	컴퓨터학	이정원	이화여대	공학박사
조형예술대학	시각디자인	김수정	뒤셀도르프예술대(독)	Diplom
	산업디자인	김원섭	한국과학기술원	공학석사
	복식디자인	박선희	Univ. de Paris (불)	D.E.A.
체육과학대학	무 용	조기숙	Univ. of Surrey (영)	Ph.D.
사범대학	교육학	한유경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유아교육	서소정	Michigan State Univ.	Ph.D.
	사회생활학	김성훈	Brown Univ.	Ph.D.
	과학교육	오필석	Univ. of Iowa	Ph.D.
법과대학	법 학	강동범	서울대	법학박사
		오중근	서울대	법학박사
		김현철	서울대	법학박사
의과대학	의 학	권복규	서울대	의학박사
		한기환	가톨릭대	의학석사
		정성철	한양대	의학박사
		박은미	이화여대	의학박사
		김태현	서울대	의학석사
		임원희	Temple Univ.	M.S.
간호과학대학	간호과학	강윤희	Case Western Reserve Univ.	Ph.D.
약학대학	약 학	곽해선	동덕여대	약학박사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	서선희	Kansas State Univ.	Ph.D.
교무처	교양영어실	최경희	이화여대	문학박사
		이소영	이화여대	문학박사
	주제통합형 교양	조윤경	Univ. de Paris III(불)	Diplome de Doctor
		김애령	베를린자유대(독)	Dr. phil.
		고인석	Konstanz Univ.(독)	Dr. phil.
		홍기령	Harvard Univ.	Ph.D.

최진호 석좌교수(나노과학부)의 51명의 신입교수와 정세현 석좌교수(북한학)·김화진 초빙교수(교육)의 2명이 2004학년도 2학기에 영입되었다.

본교는 새로 충원된 국내의 석학과 해외교수들을 통해 이화교육의 수월성 확보 및 세계적 수준의 학술 연구 기관으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진호 교수



정우진 교수



창동신 교수



김진홍 교수



윤석현 교수



이준성 교수



우원석 교수



Heather A. Willoughby 교수



이석원 교수



John M. Frankl 교수



김진희 교수



양현혜 교수



김의정 교수



송정화 교수



송지현 교수



신화섭 교수



장남원 교수



남궁곤 교수



김세완 교수



이상용 교수



홍백의 교수



장수미 교수



송용희 교수



원용진 교수



심경아 교수



이정원 교수

## 2004학년도 2학기 석좌·초빙교수

대학(원)	전공(학과)	직위	성명	대표경력
사회과학대학	북한학협동과정	석좌교수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교육대학원	교육학	초빙교수	김화진	前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과학기술대학원	건축학	초빙교수	박영환	Desingtech-East Ltd. 설립자 겸 대표이사
조형예술대학	회화·판화	초빙교수	Sadie C. Murdoch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Visiting Lecture



김수정 교수 김원섭 교수 박선희 교수



조기숙 교수 한유경 교수 서소정 교수



김성훈 교수 오필석 교수 김동범 교수



오종근 교수 김현철 교수 권복규 교수



한기환 교수 정성철 교수 박은미 교수



김태현 교수 임원희 교수 강윤희 교수



광혜선 교수 서선희 교수 최경희 교수



이소영 교수 조윤경 교수 김애령 교수



고인석 교수 홍기형 교수 정세현 교수



김화진 교수 박영환 교수 Sadie C. Murdoch 교수

## 2004학년도 제2학기 | 승진 교수

교무처(처장 성태제 교수)는 2004학년도 2학기 승진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2004학년도 2학기 평균 승진율은 74.5%이다.

**교수** 김원용(디지털미디어), 김용표(환경), 정미영(독문), 이해갑(언론홍보영상), 김아영(심리), 고응일(수학), 윤명재(생약), 박승희(특수교육), 이소현(특수교육), 최경희(과학교육), 이철수(법학), 강혜련(경영), 성연애(의학), 박기덕(의학), 김경효(의학), 황규광(의학), 정혜원(의학), 김동준(의학), 홍나영(의류직물)

**부교수** 윤주영(나노과학부), 홍서희(심리), 강영근(한국음악), 차영순(섬유예술), 한기정(법학), 박종훈(경영), 양현중(의학), 김화선(의학), 이지수(의학), 이주호(의학), 박미혜(의학)

**조교수** 박승호(디지털미디어), 반승경(컴퓨터), 김영준(컴퓨터), 김정호(정보통신), Brendan M. Howe(국제학), 백은미(기독교), 이필두(언론홍보영상), 한승우(물리), 곽은아(한국음악), 이혜선(산업디자인)

## 2004학년도 제2학기 | 우수 교수

교무처(처장 성태제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킨 강의우수 교수 및 시간강사 7명을 선정, 발표했다. 해당 교수 및 시간강사에게는 9월6일 표창 및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강의우수 교수** 정우숙(국어국문), 이필두(언론홍보영상), 윤정호(수학), 장영민(법학)

**강의우수 시간강사** 남봉순(불어불문), 문보영(수학교육), 신혜원(복식디자인)

## 2004학년도 제2학기 | 연구년 개시 교수

**1년 연구년** 윤재신(건축), 조기숙(국제학), 이해순(국문), 최주리(영문), 박성은(미술사), 김수진(정치외교), 김현민(행정), 임용빈(통계), 원문자(한국화), 박은혜(유아교육), 김 명(보건교육), 박성연(경영), 최애경(비서), 이선영(의학), 김동연(의학), 김양우(의학), 한재진(의학), 이강만(제약)

**1년(분할)연구년** 김영미(사학), 진승권(사회), 김아영(심리), 김은실(여성학), 안병태(화학), 이동희(생명과학)

**반년 연구년** 정덕애(영문), 김선욱(법학), 이광자(간호과학), 정순희(소비자인간발달), 이종미(식품영양)

## 교수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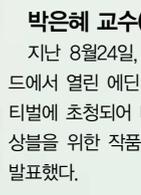
### 장필화 교수(여성)

지난 7월, 제9회 여성주간을 맞아 여성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한국 최초의 여성학과 교수로서 여성학 정착에 힘썼으며 여성특위, APEC 여성자문기구 등 국내외 기구의 여성정책 결정과정에 활발히 참여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 신경식 교수(경영)

지난 6월,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각각 최우수논문상을 받았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와 매경 이코노미가 주관하는 인텔리전스 대상의 시스템 부문 우수상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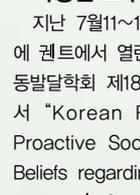
### 박은혜 교수(작곡)

지난 8월24일, 스킨롤드에서 열린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타악기 앙상블을 위한 작품 '처음'을 발표했다.



### 김일섭 교수(경영)

지난 6월, 한국회계학회에서 수여하는 삼일저명교수(봉사부문)에 선정되었다. 공인회계사로서 30여년동안 쌓아온 업적과 한국회계연구원 원장 및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기여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 박성연 교수(소비자인간발달)

지난 7월11~16일, 벨기에 겐트에서 열린 국제 행동발달학회 제18차 총회에서 "Korean Fathers' Proactive Socialization Beliefs regarding Preschoolers' Social Skills"라는 제목의 논문을 구두 발표했다.



### 조규화 교수(의류직물)

내년에 창립 120주년을 맞는 일본의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에 의해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연구자 및 지도자로 초빙되었다. 조교수는 2백만엔의 후원금을 받으며 1년간 오차노미즈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펼치게 된다.

# 수시1학기 합격자 OT 및 리더십캠프 열려

수시1학기모집 합격자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9일(월) 대강당에서 열렸다. 3백56명(외국인 합격자 1명 포함)의 예비 이화인과 학부모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주철환 교수(언론홍보영상)의 합격자를 위한 특강, 힙합 춤 동아리 액션의 축하공연이 있었으며, 2학기 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전공별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다.



이어 8월13일(금)~14일(토)에는 예비 이화인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이화리더십캠프(사진)가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마련됐다. 모토로라 조주연 이사(생활미술·92년 졸)의 ‘여성과 리더십’ 특강, 정지영 아나운서(정외·98년 졸)가 참여한 ‘선배와의 만남’, 이화 골든벨, 한밤의 콘서트(Midnight Concer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입학상담도우미 등 재학생 26명의 멘토들이 함께 참가, 이들의 생생한 이화체험을 도왔다.

수시1학기모집 합격생들은 2005년 입학 전까지 본교의 담임교수로부터 대학생활, 전공, 진로 등 학사지도를 받게 된다.

총4천6백86명 지원에 3백55명 최종 합격

## 2005학년도 수시1학기모집 전형결과 발표

입학처(처장 박동숙 교수)는 지난 8월6일(금), 수시1학기모집 최종합격자 3백55명을 발표했다. 전형별로는 일반우수자 전형은 1백92명 모집에 3천5백91명이 지원하여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정영역 우수자 특별전형은 90명 모집에 6백87명이 지원해 7.6대 1, 국제학 전문인은 73명 선발에 4백8명이 지원, 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경쟁률은 13.2대1로 지난해(10.1대 1)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7차 교육과정 시행 이후의 첫 수시 전형인 이번 전형에 수험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집단위별로는 약학과와 더불어 사범계열 학과들이 높은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2명 모집에 1백81명이 지원한 초등교육과가 9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두 번째로 치러진 특정영역우수자 특별전형은 작년에 비해 교과 이외의 활동 실적이 두드러진 지원자들의 수가 대폭 상승, 이른바 ‘준비된’ 학생들의 지원이 늘었다. 특히 과학고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이 늘었으며, 국제학 전문인 특별전형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했던 외국 고등학교 출신들이 특정영역 우수자 특별전형에도 지원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양화된 수시전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수시2학기모집에 미래과학자, 외국어 우수자,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 신설

입학처는 2005학년도 수시2학기모집으로 고교추천 특별전형, 고교성적 우수자 특별전형, 미래과학자 특별전형,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 등 총 8개 전형을 수시2학기-I 모집과 수시2학기-II 모집으로 나누어 약 1천6백명을 선발한다. 원서 접수는 9월1일(수)~6일(월)이었으며, 전형일은 전형별 일정에 따라 10월 중 구술면접이 실시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미래과학자 특별전형(50명),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70명),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50명)은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교과외 특별활동을 수시모집에 적극 활용한 본교의 대표적인 전형이다. 미래과학자 특별전형은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은 외국어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며,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에서는 특별활동 관련 서류 및 추천서 80%, 구술·면접 20%를 통해 교과외 특별활동에서 탁월한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을 뽑는다.

정시모집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인 수시2학기-II모집의 고교수학능력 우수자 특별전형은 총 7백27명을 선발하는데, 전형 및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영역별로 다양하게 적용하며, 상

위일정비율의 우수한 학생들을 전형별로 최저학력기준을 면제,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조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ewha.ac.kr>

## 기관소식

### 음악관·조형관·체육관에 휴식 공간 마련 이익금중 일부는 이화인을 위한 장학금으로

교내 건물들 중 편의시설이 부족하던 음악관, 조형관, 체육관에 각종 식음료를 제공하는 아늑한 분위기의 휴식 공간이 마련돼 이화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7일 문을 연 음악관 편의시설은 2층 김영희홀 입구 로비의 10여평 규모로 다양한 음료와 샌드위치, 케익 등을 판매한다.

운영을 맡은 본교 생활협동조합 이옥지 이사장(총무처 부처장)은 “음악대학 학생, 교직원 등 이화인 뿐만 아니라 김영희홀에서 열리는 연주회의 청중들이 그간 적당한 휴식공간이 없어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이화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협은 이외에도 지난 3월25일 조형관 B동 1층 로비에, 3월2일에는 체육관 구관 지하 1층의 운동장 출입구 옆쪽에 13~15평 정도의 편의시설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새롭게 문을 연 음악관(왼쪽)과 조형관 편의 시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 받은 중앙도서관

국내 도서관 중 정보 자동화 부문에 선구적 역할을 해온 본교 중앙도서관이 지난 8월18일 ‘2004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학술정보 공동 활용체제 구축 및 대학도서관 정보화사업에 앞장서 온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정락춘 중앙도서관 정보봉사과 과장은 “그간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인 것이 자연스럽게 타 대학 도서관의 정보화를 촉진시킨 것 같다”고 밝혔다.

인사과  
소식

정년·명예 퇴직 직원 6명  
이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마운 얼굴들

지난 8월31일자로 총무처 총무과 이대규씨를 포함한 3명이 정년퇴직을, 출판부의 배정자 직원을 포함한 3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정년 및 명예 퇴직 직원을 위한 환송예배는 지난 8월20일 이화·포스코관 B153호에서 열렸다. 또한 같은 날 열린 하계 전체직원모임에서는 과학기술대학원의 정경희 주임이 입학처 근무 당시 대학입학전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대규 박원근 이명환  
전흥구 배정자 김영화

구분	소속	성명	직위	근무내역
정년퇴직	총무처 총무과	이대규	기능직(방호)	총무과/28년 10개월
	재무처 시설과	박원근	기능직(공원)	시설과/27년 3개월
	재무처 시설과	이명환	기능직(공원)	시설과/25년 6개월
명예퇴직	중앙도서관	전흥구	사무직원	총무과/관재과/구매과/사범대학/중앙도서관 28년 11개월
	출판부	배정자	사무직원	출판부/31년 6개월
	조형예술대학	김영화	기능직(화공)	도예연구소/조형예술대학 27년 5개월

직원 인사발령

지난 9월1일, 본교 행정 업무를 담당할 신규 직원 5명을 포함한 직원 인사발령이 있었다. 발령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속	직위	성명	발령사항
의과대학	사무직원	이정희	명: 국제대학원(8월1일)
재무처 시설과	사무직원	이지연	명: 의과대학(8월1일)
재무처 회계과	사무직원	박성희	명: 재무처 지급팀
신임	사무직원	김효정	명: 기획처 홍보과(7월1일)
신임	사무직원	오승규	명: 재무처 시설과(8월1일)
신임	사무직원	이현경	명: 재무처 지급팀
신임	사무직원	김운정	명: 재무처 시설과
신임	기능직(화공)	원용현	명: 조형예술대학

2004학년도 교내연구비 제도 변경안내(2004. 9. 1 시행)

●교원의 계열구분은 교무처 교원실적 평가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른

구분	변경전 제도(2004.9. 이전)	변경후 제도(2004.9. 이후) / 신청·선정시기
특별 연구 과제	<b>재임교원 연구과제</b>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 교수만 해당:5백만원	폐지. 해당 재원은 2004. 9. 1.부터 공연·전시 지원제도와 국내학술지 게재논문 지원 제도로 변경함. / 폐지
	<b>우수논문 포상지원 연구과제</b> 본부에서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특A급 국제 학술지 (Nature, Science, Cell)에 게재된 경우 : ●주저자(1인): 80만원 ●복수의 주저자 : 60만원 ●공저자: 40만원 단, 우수논문포상지원과제와 중복신청 불가	본부에서 인정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특A급 국제학술지 포상지원 연구과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대상학술지 : Nature, Science, Cell 등 ●국내 저자포상: 2천만원 ●외국인 저자 포상시: 1천만원 단,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지원과 중복신청 불가 / 매월 신청, 선정
연구 활동 지원	<b>공연·전시 지원</b>	예체능계열 교원의 아래 공연, 전시에 대해 교수 1인당 연회 100만원을 지원(산실). ●음 대: 독주회 ●조형대: 개인전 ●체 대: 대극장 개인공연 공연·전시 지원을 받을 경우 국내학술지 게재논문제도에 신청불가/매월 신청, 선정
	<b>국제학술지 게재논문지원</b>	명칭변경: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지원제도 전계열 교원의 SCI, SSCI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을 지원함 ●주저자: 100만원 상향 ●복수의 주저자: 60만원 ●공저자: 40만원 2004. 9. 1. 이후 발간된 논문부터 주저자 상향액 적용함. 단, 우수논문포상지원과제와 중복신청불가 / 매월 신청, 선정
	<b>국내학술지 게재논문지원</b>	인문사회, 예체능계열 교원에 한해 지원(산실) 2004. 9. 1. 이후 발간된 논문부터 적용함. 신청방법 주저자가 대표로 신청하되, 본교공저(교원에 한함)에 대해 논문기여도를 감안해 지분을 나누어 신청함. 단 외부 주저자와 공저일 경우 본교 공저자가 신청함. 지급방법 지원금은 회계과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료지급계좌로 입금되며, 강사료 지급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급여지급계좌로 입금됨. 지원금은 유시급여로 처리되어 급여와 합산하여 추후 세금이 공제됨. ●학진등재학술지: 편당 100만원, 외부 주저자와 공저인 경우 편당 40만원 ●학진등재후보학술지: 편당 40만원, 외부 주저자와 공저인 경우 편당 20만원 8월말에 나오는 2004 상반기 학진등재(후보) 학술지 리스트를 2004-2학기 기준으로, 12월말에 나오는 2004 하반기 학진등재(후보) 학술지 리스트를 2005-1학기 기준으로 적용함. 단, 공연·전시 지원을 받은 예체능계열 교원은 신청불가/매월 신청, 선정
	<b>학술대회 개최지원</b>	대학 또는 교내연구소 주관의 국내·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제도 ●국내학술대회: 50만원 ●국제학술대회: 100만원
<b>Seed Money</b>	대형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Seed Money 제공 (신청액기준) ●이공계열(실험): 10억 이상: 500만원, 5억 이상: 250만원 ●인문사회, 이공계열(이론): 5억 이상: 100만원, 2억 이상: 50만원 연구책임자에게 지원(증빙 처리)	계열별 지원액수 하향조정함 ●이공계열(실험): 10억 이상: 300만원, 5억 이상: 200만원 ●인문사회, 예체능,이공계열(이론): 5억 이상: 100만원, 2억 이상: 50만원 심사 단계별로 분할지급 연구책임자에게 지원하며, 제안서 준비기간 중 회의비 및 인쇄비 영수증에 한하여 지급함 / 수시 신청, 선정

\*특별연구과제의 신임교원 연구과제와 특별정책 연구과제, 연구활동지원의 학술서 저술지원, 인력자원의 박사후 과정 연구원 지원과 연구조교 지원은 변경사항 없음.



2004학년도  
직원교육 대상자 선정

총무처(처장 양혜순 교수) 인사과가 주관하고 있는 직원 교육의 2004년도 교육 대상자가 선정됐다. 본교 경영연구소의 제70기 이화여성고위경영자 과정에는 학생처 학생복지센터 유중실 주임이, 이화리더십개발원의 제3기 기업여성 리더십 과정에는 학생처 학생복지센터 이난희 주임과 총무처 인사과 장영숙 주임이 참가한다.

〈2004학년도 직원 해외연수대상자〉

직종	성명	소속
일반직	김은숙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백승옥	사범대학 행정실
	이난희	학생복지센터
	이성창	재무처 시설과
기술직	조원숙	재무처 구매과
	이복희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김영환	의과대학
	장인경	중앙도서관
기능직	김주영	대학보건소
	홍순일	총무처 총무과
	김덕순	총무처 총무과
	김양수	총무처 총무과
	양외승	총무처 총무과
	김은순	총무처 학생복지과
	이명환	재무처 시설과



## 중국어회화 II

이재돈 · 모해연 · 왕하 지음

『중국어회화 I』에 이은 심화 교재. 풍부한 그림 자료와 다양한 상황 설정을 통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 및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회화 학습을 통해 중국어권 지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효과도 기대된다.

〈만2천원〉

## Thought beyond thought

김흥호 지음 / 김화자 역

본고 기독교학과 교수와 교목(1956-84년)으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김흥호 목사의 에세이 모음집을 영역한 것이다. 자아, 청춘, 자연, 삶, 사회, 종교, 기독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까운 현실을 통해 세상을 통찰하는 1백4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저자에 의하면, '생각을 뛰어넘은 생각'이란 진실한 존재가 본 진실한 세계를 말한다. 그냥 보면 돌에 불과하지만 깬 정신으로 보면 돌은 살아서 움직이는 영원한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갈피마다 성찰의 빛이 가득한 이 에세이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만원〉

## 누가 철학을 할 것인가

소흥렬 지음

‘철학의 위기’ 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철학을 반성하는 내용의 글과, 철학이라는 학문의 근본적인 속성을 논하는 철학 강의 및 토론을 위한 자료를 모은 책이다.

철학의 기본 영역인 존재론 · 가치론 · 인식론 · 방법론의 문제, 논리적 사유를 생명으로 하는 철학과 과학의 밀접한 관계, 철학이 과학을 넘어서서, 문학 · 예술 · 종교 · 역사와 만날 수 있는 메타사이언스(Metascience)의 문제, 사유의 능력을 키우는 철학적 글쓰기의 문제와 사유하는 인간을 키우는 철학 교육의 문제 등을 특유의 논리정연하면서도 부드러운 필치로 논하고 있다. 〈9천원〉

## 영재교육 | 심리학과 교육학에서의 조망

에이브라함 J. 탄넨바움 지음 / 김태련 · 김정휘 · 조석희 옮김

고급 두뇌의 본질과 특성, 잠재적 영재의 발굴, 창의성과의 관련성, 영재 학생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방안 등 영재에 대한 모든 쟁점사항들을 정리해놓은 영재교육 분야의 고전. 대부분의 영재 아동, 영재 교육론 관련 서적이 교육적 기반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이 책은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섭렵하여 교육학과 심리학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데에 강점이 있다. 이는 영



지나 8월5일, 학술출판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한 '2004년도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 학술부문' 선정 사업의 결과, 본고 출판부의 도서 3종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다. 문화관광부는 1종당 1천만원 상당의 추천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추천도서 목록 | 『고려 전기 한문학사』(이혜순 지음),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 탐색』(김민환 지음),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김성준 지음)



재 교육의 원리와 실체가 심리학과 교육학에 근거해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2년도부터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하여 공교육 체제에서 영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재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와 대책, 문제 제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만6천원〉

## 여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대니얼 J. 레빈슨 지음 / 김애순 옮김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이화여대 출판부, 1996)의 저자 대니얼 레빈슨이 15년에 걸친 심층 면접을 통해 성인 여성의 인생 과정을 심도 있게 파헤친 연구서. 이 여성 연구의 목적은 양성에 공통적인 성인 발달의 개념적 틀을 찾아냄과 동시에 특별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성인 발달 이론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저자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여성으로부터 남성을, 그리고 자아 안에 있는 남성성으로부터 여성성을 분리시키는 장벽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에 문화와 개인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성의 분리(gender splitting)’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여자들의 인생을 조망해 봄으로써, 여자와 남자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2만원〉

##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 문학

일레인 쇼월터 엮음 / 신경숙 · 홍한별 · 변용란 옮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발표했던 다양한 페미니스트 문학비평가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으로, 원제는 ‘The New Feminist Criticism’.

처음 출간된 1985년 당시 이 책은 영미문학의 각 분야에서 그동안 시도된 다양한 페미니스트 비평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페미니스트 비평의 주요 논제뿐 아니라 실제 강의실에서 페미니즘 비평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됐다.

물론 문학 분야뿐 아니라 문화 연구 전반에 걸쳐 페미니스트적 담론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현 상황에서 페미니스트 비평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비평 담론의 양적 풍성함과는 별도로 이 비평들이 얼마만큼 치밀한 작품 해석과 텍스트 분석을 수행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이론’의 조화에 특히 힘썼던 1980년대 영미권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 정교한 분석들은 페미니즘 이론이 실제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범으로서, 현재 페미니즘 비평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에게도 유익한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만4천원〉

## 박미조 동문 최종 합격



박미조 동문(정치외교·98년 졸)이 지난 7월8일 제38회 외무고등고시 외교통상직에 최종 합격했다.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는 총 20명으로 여성은 7명이다. 박동문은 "최근 외교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외교관이 되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1988년에 오영주 사무관(정치외교 86년졸)이 외무고시에 처음 합격한 이래 2000년 1명, 2001년 3명, 2002년 2명, 2003년 1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어 최근 이화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 이혜원 동문(의류직물 7년 졸)



지난해 12월5일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학, 의료, 지역사회복지, 환경문화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현재 본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재학중이다.

### 신혜수 동문(영문 72년 졸)



지난 8월6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재선됨으로서 2001~2004년 임기에 이어 앞으로 4년 동안 각국의 여성정책을 국제적 차원에서 감시하게 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이기도 한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물론 인신매매,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최영애 동문(기독교 74년 졸)



지난 7월15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선출되었다. 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개설, 활발한 여성인권운동을 펼쳐온 최 동문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2002년 2월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지금까지 일해 왔다.

### 최민경 동문(피아노 96년 졸)



지난 8월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개최된 '2004 이브라 국제 음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최 동문은 미국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 및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는 메릴랜드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 채은미 동문(불어교육 85년 졸)



지난 8월24일 글로벌 항공 특송회사인 페덱스의 북태평양지역 인사관리 담당 상무이사로 임명됐다. 한국인이 페덱스사의 지사장급에 임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교 교육대학원과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채 동문은 86년 플라잉 타이거사에 입사, 지금껏 국제 물류업계에 몸담아 왔다.

## 제3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41명의 이화인 합격 이화출신 공인회계사 네트워킹도 본격화

지난 9월8일 발표된 제39회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 총 41명의 이화인이 최종 합격했다. 이중 졸업생은 29명이며, 재학생 합격한 경우도 12명이나 된다. 전공별로는 경영학과가 20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서인석 경영대학장이 주관하는 '공인회계사 동창 및 제39회 공인회계사 2차 합격자 모임'이 오는 9월22일(오후 7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화 출신 공인회계사들은 앞으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회계사 지원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곽소현(통계 99년 졸) 김경하(경영 4년 재학) 김도희(경영 02년 졸) 김미진(경영 04년 졸) 김성근(경영 02년 졸) 김수욱(경영 02년 졸) 김수진(경영 4년 재학) 김연미(경영 01년 졸) 김윤아(수학 04년 졸) 김지현(통계 02년 졸) 김진희(경제 4년 재학) 김혜미(경영 4년 재학) 김희연(경제 00년 졸) 남숙희(경영 4년 재학) 박성희(경영 98년 졸) 박영주(사회생활 96년 졸) 박지연(통계 02년 졸) 박지예(통계 03년 졸) 박찬미(경영 3년 재학) 박현영(경영 03년 졸) 박희림(경제 04년 졸) 배세윤(경영 04년 졸) 서민아(경영 3년 재학) 서시연(소인발 98년 졸) 서유미(경영 02년 졸) 송승아(국문 04년 졸) 양윤정(경영 4년 재학) 오복희(경영 02년 졸) 유정은(소인발 3년 재학) 유현영(경영 04년 졸) 이보형(경영 98년 졸) 이영숙(통계 4년 재학) 이윤희(영문 04년 졸) 이지숙(경제 04년 졸) 임미진(경제 03년 졸) 전지원(통계 02년 졸) 정미원(통계 02년 졸) 조연경(수학 00년 졸) 차전영(경제 04년 졸) 홍정혜(경영 4년 재학) 황지영(경제 4년 재학)

## 공직 사회에서도 이화인들 활약 두드러져 양지선 · 김애령 · 장문선 동문 등 잇따라 '여성 1호' 기록



양지선 동문 김애령 동문 장문선 동문

최근 공직자 사회에서 두터운 금녀의 벽을 무너뜨린 여성 공무원들이 모두 이화 출신으로 밝혀져 화제다. 지난 7월29일 식품의약품의약품평가부장으로 임명되어 식약청 최초의 국장급 여성간부가 된 양지선 동문

(제약 81년 졸), 8월초 국무총리실 최초의 여성 과장이 된 김애령 동문(사회 85년 졸), 8월5일 기획예산처로는 처음으로 여성 서기관으로 승진한 장문선 동문(신문방송 96년 졸)이 그 주인공들.

본교 졸업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물리약학)를 받고 88년부터 식약청의 전신인 국립보건안전연구원에서 일해온 양지선 동문은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더 공정하고 소신있게 일한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애령 동문은 본교에서 박사학위(여성정책)를 받은 후 충남도청 여성정책 전문위원, 여성부 정책1담당관 등으로 일해오다 최근 국무총리실 외부 개방직에 응시, 합격하면서 국무총리실 설립 31년만에 처음으로 여성과장(여성청소년정책과)이 됐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성빈곤 대책, 성매매 예방, 여성정책 평가 등에 초점을 맞춰 일하겠다"는 포부.

1년 내내 야근이 계속되는 험한 업무로 유명한 기획예산처 최초의 여성서기관이 된 장문선 동문은 행정고시(39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97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철도청 사무관으로 발령받아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투자예산을 담당했으며 99년 기획예산처로 옮긴 후에는 2000년 2월 예산실 근무 첫 여성의 기록을 남겼다.

# 장학금 기탁자 소식

## 유박영 동문

### 청박장학금 1억원 기탁

## “형편이 어려운 의대 후배들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난 6월30일 유박영 동문(의학 74년졸)이 총장실을 방문, 이화사랑장학금 1억원을 약정했다.



“의과대학생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장학금 기탁을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학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의과대학 후배들을 위하여 1억원의 장학금을 기꺼이 내놓은 유 동문은 이러한 기부는 당연한 일로 여긴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더욱 의미있는 일임을 강조한다.

이 장학금은 유 동문의 아호인 ‘청박(푸른 옥) 장학금’으로 명명되며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유 동문은 현재 폐경과 골다공증 및 항노화 전문병원인 청박병원(입구정동 소재) 원장으로 재직하며 이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 및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성정희 동문

### 장학금 5천만원 기탁 인터넷 약정으로는 최대 액수

지난 6월24일 온라인 소액모금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외협력처 홈페이지(<http://ewha21.ewhain.net>)에 후원금액 5천만원에 달하는 장학금 약정서가 접수되었고, 바로 다음 날 전액 입금되었다.

인터넷약정 사상 최고액 기탁자의 주인공은 1975년 본교 관현악과를 졸업한 성정희 동문. 이 장학금은 6월초 결혼기념일을 맞아 성 동문의 부군인 문영무(주)크로바 대표)씨가 아내의 이름으로 직접 기탁한 것이다.

성 동문은 학생시절 장학금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기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문영무씨 역시 그런 뜻을 늘 존중해 주었다고.

그 어느해보다 의미 있는 결혼기념일을 보내게 된 성 동문 내외는 “무엇보다도 두 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었다”며 경제상황이 어렵고 각박한 시절이지만 나눔의 실천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순자 동문

### 송헌장학금 5천만원 기탁

## “여성지도자 양성에 보탬이 되길...”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어려운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난 6월16일, 김순자(이영희 29기) 동문이 이화사랑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약정했다.

액수가 작다며 겸손해하는 김 동문은 여성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를 맞아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본교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국가고시 및 전문 자격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장학금은 김 동문의 부군 김명술(재단법인 환경연구소 이사장)씨의 아호 ‘일송(一松)’의 ‘송’자와 김 동문의 아호 ‘현전(炫田)’의 ‘현’자를 합친 ‘송헌장학금’으로 명명되었다.

김 동문은 이전에도 본교에 21세기 발전기금으로 8백만원을 기탁하였고, 최근 정치외교학과 고시후원회 장학금으로 1천2백만원을 약정한 바 있다.

### 정치외교학과 고시후원회 발족 5천만원 후원금 조성 약정

정치외교학과 출신 동문들이 고시준비 전공생 특별 후원모임인 고시후원회(대표 최명숙)를 발족하고 지난 7월 7일 후원금 5천만원을 약정했다. 정치외교학과 전공생들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결성된 이 모임은 특히 행정고시 및 외무고시 준비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정치외교학과 출신 박미조 동문(98년졸)의 제38회 외무고시 합격 소식은 후원회 발족에 더욱 힘을 실어주었다.

#### [정치외교학전공 고시후원회 이사 명단]

이재항(정의 57년졸), 최명숙(정의 58년졸), 이양준(정의 70년졸), 김영순(정의 73년졸), 차남희(정의 76년졸), 김은주(정의 81년졸), 백남진(정의 81년졸), 최은봉(정의 81년졸), 조기숙(정의 82년졸), 함재정(정의 82년졸), 황유정(정의 85년졸), 장은심(정의 86년졸),

### 이광옥 교수 · 한인숙 교수 급여공제로 5천만원 장학금 완납



이광옥 교수



한인숙 교수

이화사랑장학금으로 각각 5천만원을 급여공제 납부 방법으로 약정했던

이광옥 교수(간호과학)와 한인숙 교수(행정학)가 지난 7월25일자 급여를 끝으로 5천만원을 완납했다.

이광옥 교수는 2001년 12월부터 급여공제를 시작해, 목돈이 생길 때마다 일시불로 납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왔다. 지난 8월31일자로 정년퇴임한 이 교수의 장학금은 지역사회 간호학 전공생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한인숙 교수 역시 2003년 11월, 장학금 5천만원을 약정하고 급여공제와 일시불 납부의 방법으로 완납했다. 한 교수의 장학금은 행정고시 준비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 음악대학, 장학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개최 등 1억원 마련

음악대학(학장 이규도)은 지난 5월25일 ‘음악대학 장학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 1천7백40만원과 학부형·교수·동창회에서 모금한 후원금 8천2백60만원을 합하여 장학금 1억원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음대특별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음악대학생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음악대학은 2002년에도 장학금 모금 음악회를 개최해 장학금을 조성한 바 있다.

#### [후원자 명단]

문응주 1천만원, 박성희 1천만원, 김상택 5백만원, 윤성순 5백만원, 김학대 3백만원, 하혜인 3백만원, 곽정에 2백만원, 김광식 2백만원, 이종상 2백만원, 장대진 2백만원, 정진우 2백만원, 한주환 2백만원, 윤재천 1백50만원, 강수정 1백만원, 강희영 1백만원, 공은아 1백만원, 곽은아 1백만원, 김문정 1백만원, 김영애 1백만원, 김인철 1백만원, 김현주 1백만원, 박승훈 1백만원, 박재일 1백만원, 박찬중 1백만원, 송수섭 1백만원, 우종윤 1백만원, 원영희 1백만원, 원정연 1백만원, 이규현 1백만원, 이규형 1백만원, 이윤옥 1백만원, 이정우 1백만원, 임준희 1백만원, 장호진 1백만원, 전인옥 1백만원, 정수영 1백만원, 최영수 1백만원, 허장근 1백만원, 홍권욱 1백만원, 권성혁 50만원, 권택명 50만원, 김종태 50만원, 김희성 50만원, 양희경 50만원, 우성숙 50만원, 주원영 50만원, 추창호 50만원, 한연주 50만원, 남기숙 30만원, 오이숙 30만원, 윤신근 30만원, 주영희 30만원, 양수화 30만원, 지순경 30만원, 정청자 30만원, 윤미재 25만원, 함영림 25만원

### 동창일터바자회 수익금 중 일부 기탁

지난 5월27일 이화인닷컴 동창일터바자회(사진)에 참여했던 업체가 수익금 중 일부를 본교에 보내왔다. (주)&She Communication 대표 이정선 동문(경영대학원 02년졸)은 바자회 수익금 중 10만원을 장학금으로 보내왔고, 제니스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화IT클럽 회장 이서영 동문(경영 86년졸)은 상품권(1백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 ALPS 백혜자 총동창회장

### ECC 기금으로 5천만원 기탁

여성 최고 지도자과정 (ALPS · Advanced Leadership Program Society) 12기 출신으로 현재 ALPS 총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백혜자 동문이 지난 8월16일 총장실을 방문, ECC(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내놓았다.



“ALPS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올해, 동창회장이 되어 더욱 어깨가 무겁습니다. 회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탁아소기금 모금에도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바자회를 열어 장학기금 등도 모을 생각입니다.”

ALPS 동창회장으로서 더 열심히 학교를 돕겠다고 다짐하는 백 동문의 ECC 기금 기탁은 순전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 신인영 총장은 “백 동문의 기금을 계기로 ECC 건립 기금 모금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을 기대한다며 ALPS 동문들을 위해 학교가 다양한 사후 프로그램을 마련, 평생 교육을 돕겠다고 말했다.

## 탁아소기금 기탁 소식

정보과학대학원(원장 안홍식) 여성최고 지도자과정 19기 수료생 44명이 탁아소기금으로 총 8천만원을 기탁했다. 여성최고 지도자과정 수료생들은 매학기 탁아소기금을 보내오고 있다.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순옥 5백28만원, 윤광자 5백28만원, 백정자 4백55만원, 유행강 3백65만원, 김봉자 2백60만원, 김테레사 2백60만원, 박미자 2백60만원, 박은숙 2백60만원, 신순자 2백60만원, 이수자 2백60만원, 한순자 2백60만원, 박옥남 2백8만원, 석지민 2백8만원, 조옥란 2백8만원, 최숙기 2백8만원, 강명희 1백56만원, 김계주 1백56만원, 김미자 1백56만원, 김양순 1백56만원, 김희경 1백56만원, 안귀연 1백56만원, 여인상 1백56만원, 오남환 1백56만원, 윤정연 1백56만원, 이진선 1백56만원, 정경애 1백56만원, 최수자 1백56만원, 최은정 1백56만원, 임미양 1백31만원, 강옥자 1백4만원, 김미령 1백4만원, 김인자 1백4만원, 김형이 1백4만원, 나문희 1백4만원, 박명진 1백4만원, 박영희 1백4만원, 신수미 1백4만원, 심규자 1백4만원, 심현옥 1백4만원, 이경란 1백4만원, 이선순 1백4만원, 이영애 1백4만원, 이정희 1백4만원, 황만순 1백4만원

## 새로워지는 이화, ECC

21세기 이화비전의 상징,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이화캠퍼스센터 건립기금을 보내주신 분들

(주)법건총합건축사사무소 1천만원, 구근희 동문(가정 66년출) 1천만원, 김호욱 동문(국문 59년출) 5백만원, 이강희 동문(약학 66년출) 5백만원, 최향남 동문(정외 60년출) 3백50만원, 서영화 동문(초교 66년출) 3백만원, 양명수 교수(기독교학전공, 신학대학원장) 3백만원, 제주지역동창회(대표 현애월) 2백만원, 민민자 동문(정외 67년출) 1백만원, 이수영 동문(정외 63년출) 1백만원, 최서연 동문(언홍영 04년출) 1백만원, 유하연 동문(정보디자인 02년출) 5백만원

## 교내 각 기관 발전기금 기탁현황

### 의과대학 기숙사 신축기금

의학과 23기(김옥 외 33명) 6천만원, 강은숙 교수(의학 90년출) 1천만원, 김치효 교수(의학 79년출) 1천만원, 이창기 교수(의학 85년출) 1천만원, 최보원 동문(의학69년출) 1천만원, 최유원 동문(의학 92년출) 5백만원, 이시내 교수(의학 93년출) 5백만원, 이창기 교수의학 85년출) 1천만원, 최유원 교수(의학 92년출) 5백만원, 한중인 교수(의학 88년출) 5백만원

###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허정옥(간호 76년출) 4백만원, 박세진(간호 83년출) 3백만원, 김영희(간호 80년출) 2백만원, 김윤영(간호 93년출) 2백만원, 왕기미(간호 83년출) 2백만원, 김정선(간호학 석사과정 83년출) 50만원

### 조형예술대학 특별프로젝트 기금

이길배 2천만원

### 생활환경대학 발전기금

이선혜(식품영양 74년출) 3백33만원, 이영희(가정관리 74년출) 3백33만원, 주성희(의류직물 74년출) 3백34만원

### 패션디자인연구소 기금

패션디자인연구소 1천6백80만원

### 임상치의학대학원 발전기금

김선종 5백만원

### 약학교육 발전기금

신경희(약학 51년출) 1천만원

## 장학금 기탁현황

### 일곡문화재단장학금

일곡문화재단 3백만원

### 정고후장학금

이영숙(ALPS 6기) 3백만원  
이명수(ALPS 16기) 50만원

### 보건교육과장학금

한은옥 동문(보건교육 박사과정 재학) 1백만원

### CEO장학금

유순신(주)유엔파트너즈 대표) 30만원

## 사범대학 교육관 신축기금 기탁소식

5천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던 이란옥 동문(교육공학 85년 출)이 새로이 사범대학교육관 신축기금으로 1천만원을 약정한 것을 비롯, 이정순 동문(교대원 미술교육 79년 출), 정은성 동문(교대원 상담심리 03년 출), 홍승해 동문(교육학 57년 출)이 각각 천만원을 기탁했다. 사범대학 출신으로 본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기탁도 이어지고 있다. 김정애 동문(교육심리 76년 출 · 교육대학원 교학부 과장)이 5백만원을, 윤명희 동문(교육공학 79년 출 · 기획과장)이 1백만원을 급여공제로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오혜원 동문(교육공학 98년 출 · 총장비서실) 및 정연희 동문(교육공학 98년 출 · 교과과)도 각 30만원을 급여공제에서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약정했다. 한편 교육대학원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 18명은 교육관 신축기금으로 총 5천4백50만원의 금액을 모아 대외협력처로 전달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교육대학원 동문

고준자(가정교과 74년출) 5백만원, 노용(미술교육 74년출, 교대원 교수) 5백만원, 강용란(지학교육 85년출) 3백만원, 김남희(유아교육 03년출) 3백만원, 이복경(역사교육 86년출) 3백만원, 김수정(미술교육 74년출, 초형대 교수) 1백50만원, 이하영(미술교육 재학) 1백50만원, 김여옥(교육행정 72년출) 1백만원, 박민정(역사교육 00년출) 1백만원, 송규석(교육행정 73년출) 이경원(미술교육 92년출) 1백만원, 이윤혜(음악교육 78년출) 1백만원, 장일경(사서교육 01년출, 중앙도서관) 1백만원, 차령아(교육행정 96년출) 1백만원, 허경란(미술교육 03년출) 1백만원

그 밖에 기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혜숙(교육학 68년출) 7백만원, 이병훈(교육공학 학부형) 5백만원, 이정원(교육공학 89년출) 5백만원, 남경희(교육공학 82년출) 3백만원, 박남숙(교육공학 69년출) 3백만원, 박재하(교육학 72년출) 3백만원, 백선희(교육학 85년출) 3

백만원, 정민오(교육학 85년출) 3백만원, 박운옥(교육학 72년출) 2백만원, 손이향(교육공학 85년출) 2백만원, 이정란(사회생활 74년출) 2백만원, 교육학과 8기(교육학 57년출, 대표 이용옥) 1백만원, 권성연(교육공학 03년출) 1백만원, 김명중(교육학 57년출) 1백만원, 문성자(교육공학 74년출) 1백만원, 박천숙(사회생활 72년출) 1백만원, 박효숙(교육공학 84년출) 1백만원, 심정식(교육공학 84년출) 1백만원, 양영선(교육공학 81년출) 1백만원, 윤현정(교육공학 85년출) 1백만원, 이연숙(교육학 57년출) 1백만원, 이용옥(교육학 57년출) 1백만원, 양기연(교육공학 84년출) 50만원, 여위숙(교육공학 82년출) 50만원, 이연희(사회생활 74년출) 50만원, 채영원(사회생활 74년출) 50만원, 한혜성(교육공학 84년출) 50만원, 박명신(교육공학 84년출) 30만원, 변진주(교육공학 84년출) 30만원, 양상용(교육공학 84년출) 30만원, 이규리(교육공학 85년출) 30만원, 임성희(교육공학 85년출) 30만원, 장문선(교육공학 84년출) 30만원, 전신숙(교육공학 84년출) 30만원, 홍희란(교육공학 84년출) 30만원, 계보경(교육공학 박사과정 재학) 30만원

**영상의학과, 국내최초로 전신촬영이 가능한 MRI도입  
1회 촬영으로 전신성 질환, 육안으로 확인**



목동병원(원장 박영요) 영상 의학과에서 지난 6월26일 국내 최초로 전신촬영이 가능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사진)를 추가로 도입,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전신영상용 MRI는 부위별 촬영만이 가능했던 기존 MRI와는 달리 1회 검사로 전신촬영이 가능해 한번에 각종 전신성 질환의 진행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질환검사에서 진단가치가 높은 우수한 영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심혈관 검사와 뇌기능 분석의 제공 등을 통하여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풍, 치매 등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도입된 MRI에는 유방검사 전용코일과 함께 특수조직생검 키트가 있어 기존의 유방촬영술이나 유방초음파 등의 검사로 진단하기 어려웠던 유방암의 병변까지 진단이 가능해 유방암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소음도 획기적으로 줄었고 검사시간도 단축되어 보다 쾌적한 검사가 가능해졌다.

**초고속 선도망 (KOREN) 개통  
국내·외 병원간 원격진료 및 강의시스템 구축**

목동병원(원장 박영요)이 최근 초고속 선도망(일명 KOREN)을 개통하고 이를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사진)을 7월15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초고속 선도망(KOREN)은 국내 대학·연구소·산업체 등에 IT 관련 기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비영리 연구망이다. 이러한 초고속 선도망 개통을 계기로, 목동병원은 국내·외 여러 병원간의 원격진료, 강의시스템의 운용이 가능해졌다.

본교 문병인 교수(외과)는 "초고속 선도망을 이용하면 고품질의 영상을 실시간 전송할 수 있어 실시간 수술시연(live surgical demonstration)이 가능해지고,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병원을 연결할 수 있어 의학발전엔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목동병원 외과에서 한국-일본간의 사이버 강연을 기획, 본원과 일본 큐슈대학병원을 초고속 선도망으로 연결하여 'Current Status of Robotic Surgery' 라는 주제하에 열띤 논의들이 오고갔다.

**20개국 여성 지도자들  
모자센터 견학 및 교육행사 가져**

지난 7월22일 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는 네팔을 비롯한 20개국 여성 건강관련 공무원 및 단체 인사 20인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자센터에 대

한 견학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훈련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의 모자센터 소개, 예방의학과 하은희 교수의 강연 '일하는 여성과 건강' 등이 진행됐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2년부터 외국의 공무원 및 관련 단체 인사를 초청해 국제훈련을 진행해 왔다.

한편 모자센터는 9월4일 모유수유를 주제로 제3회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의 '르바이에 분만과 모유수유'와 소아과 서정완 교수의 '모유의 장점' 강연이 있었다.

**피부과, 최신기기 이용 전문 클리닉 개설**



목동병원 피부과가 지난 6월2일부터 외래에 최신 레이저기기 및 각종 전문 치료기(사진)를 설치, 전문 클리닉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여드름 및 피부미용 클리닉과 노화 및 레이저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과 명기범 교수와 최유원 교수가 진료한다.

노화 및 레이저 클리닉은 여러가지 최신형 레이저 및 기기를 이용하여 노화로 인한 피부병변 및 혈관종, 모반, 문신 등의 제거, 제모수술을 시행한다. 여드름 및 피부미용 클리닉은 여드름 증상완화를 위한 면포압출 등의 케어에서부터 여드름으로 인한 흉터까지 여드름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를 맡는다.

동대문 병원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협력 협약 체결**

동대문병원(원장 연구월)이 지난 7월21일 동대문구 제기동에 위치한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과 의료협력 협약을 체결(사진)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3천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복지관으로, 동대문병원은 앞으로 월 2회, 회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와 함께 진료상담 및 무료검진을 제공하고, 진료의 연장선상에서 정밀검사·진단·치료를 할 예정이다. 동대문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동대문병원의 연구월 원장, 김광연 사무부장, 장석만 총무과장 등과 업무보석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 및 회원들이 참석,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대한태아학회 학술상 수상**

지난 7월2일, 제9차 대한태아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영주 교수는 'oxidative stress and placental apoptosis' 라는 연제로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학술지원금도 함께 전달받았다.



**윤건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대한신장학회 2004 중외연구비상 수상**

지난 6월5일, 대한신장학회 제24차 춘계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혈액투석환자에서 Vitamin C 정맥투여가 빈혈치료와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투석 합병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계획을 발표, 2004년 중외연구비상을 수상했다.